

2002 인쇄문화상 수상자확정

경영관리부문

정광훈 정문정보사장

기술부문

소병호 삼화인쇄(주)상무

특별부문

최정병 인천전문대학교수

9월13일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될 인쇄문화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경영관리부문에는 정광훈 정문정보 대표이사, 기술부문에는 소병호 삼화인쇄(주) 상무이사가, 특별부문에는 최정병 인천전문대 화상인쇄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경영관리부문 수상자 정광훈(55세) 정문정보 대표이사는 탁월한 경영철학으로 인쇄산업을 정보산업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인쇄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등 인쇄업계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1976년 정문출판(주)를 창업, 운영하다가 93년에 현재의 정문정보를 창업했다. MS사와 AR 계약을 맺고 94년부터 CD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97년에 인쇄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했다. 98년에는 벤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99년에는 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2000년엔 KT마크를 획득하고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는 NT마크를 인증받기도 했다. 정광훈사장은 기업운영에 있어 사원의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기주도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재의 양성과 능력향상에 따른 처우개선 및 보상 실현으로 직원들의 동기를 유

발하므로써 자율과 창의가 숨쉬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정광훈사장은 그동안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에도 남다른 기여를 하므로써 문화관광부장관 표창과 조세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기술부문 수상자 소병호(58세) 삼화인쇄(주) 상무이사는 1972년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현재의 삼화인쇄주식회사에 입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외길 인쇄인이다. 소상무는 그동안 인쇄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출시장 개척 및 국내 인쇄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인쇄업계의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대한인쇄연구소 기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계발전과 친목도모, 기술정보 교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선진인쇄 기술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인쇄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이며 수출산업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유능하고 젊은 인재양성에 헌신하는 한편 직원의 기술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공장장 및 상무이사를 겸직하면서 노사는 한가족이며 회사의 발전은 곧 근로자 본인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광훈 사장



소병호 상무



최정병 교수

특별부문 수상자 최정병(60세) 인천전문대 인쇄교수는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선인중학교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78년 인천공업전문대학 인쇄과 전임강사로 인쇄교육과 인연을 맺은 최교수는 30여년 동안 인쇄교육에 몸바치고 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인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합성막 제조에 관한 연구' '사진의 제현상에 관한 고찰' '포장용 필름에 관한 고찰' '폴리올레핀용 그라비아 잉크의 인쇄적성' '인쇄잉크특성을 고려한 다색인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RGB화상 데이터를 이용한 CRT표현색의 CIE Lab 표색계로의 변환에 관한 연구' 'Lake Red C 안료의 표면적과 용매함량이 인쇄잉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주쇄형 이량체 액정의 상도와 분자형태' 'UV 경화성 수지와 알키드 수지 복합 재료의 경화 거동과 동적 점탄성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교수는 1999년 'UV 중합성 수지와 알키드수지 혼합물의 경화특성 및 상분리 구조에 관한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최교수는 '광고 인쇄업체의 폐수관리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은 9월 14일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앞당겨 13일 오전 10시 30분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과 각계 인사, 그리고 많은 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쇄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쇄인들에

게 정부 포상과 협회장 표창도 있게 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직지상은 대상자가 없어 시상하지 않는다. 인쇄문화의 날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쇄문화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쇄종주국의 영예를 되찾자는 인쇄인들의 뜻을 모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 인쇄문화의 날인 9월 14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금속활자로 석보상절을 인쇄한 날(음력 1447년 7월25일)을 기념하여 제정했다. 이때 인쇄강령도 선포됐다.

인쇄문화상 시상요강

경영관리부문 : 인쇄업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했거나 관리제도의 개선 및 인쇄업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기술부문 : 인쇄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혁신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새로운 인쇄기술을 개발하여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

특별부문 :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출판 제지 잉크 제본 등 관련업계에서 인쇄문화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거나 인쇄교육 기관에서 우수인쇄인 양성으로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정이 현저하거나,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인쇄문화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타 인쇄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직지상 : 인쇄업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뛰어난 기획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인쇄물을 생산하여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인쇄종주국의 영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인쇄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인쇄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신기술 습득과 기술전수에 적극 노력하여 인쇄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새로운 기술도입 및 개발로 인쇄물 수출 진흥에 공이 많은 사람.